

## 주님께만 소망을 둥시다

요한복음 14:1-3

### 본문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1-3)

### 말씀선포

우리는 오늘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계시고, 그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감각 속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우리 000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집에 기쁨으로 거하고 계실 우리 000님이 천국으로 입성하신 지 0년이 되어, 추모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000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000님이 걸어가셨던 신앙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잡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고, 이렇게 근심에 싸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처소를 마련할 것인데, 그 처소가 마련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할 것이기에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편안한 쉼이 있는 집으로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도, 심지어는 여가의 시간을 보내거나 그냥 친구들과 놀려고 외출했던 사람도, 하루의 삶이 끝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곳은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항구를 떠난 배는 어떻습니까? 거친 풍랑을 헤치고 기나긴 항해를 하지만, 그 항해

를 마치게 되면 결국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구로 돌아가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며 지친 몸이 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길고 거친 항해를 마친 배가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항해를 마친 배에 있어서, 큰 낭패와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산 후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 평안히 쉴 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낭패를 당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000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돌아가 평안한 쉼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염려와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곳에 우리 000님이 계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게 000님을 추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000님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계시는데, 우리 중에 한명이라도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처소에 들어갈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000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처소에서의 000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길로 걸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긴 것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린다고 고백합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그 시절대로 금새 지나가버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또 정신없이 지나가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요,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신앙과 믿음을 더욱 더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 000님과 다시 만나 누릴 재회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신 000님을 기억하고 다시만날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000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축복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며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